

아파트의 미학(美學)

안산 푸르지오브리파크



단지 내 '패밀리가든'.

사계절 피는 꽃들 보며 우리집 정원에서 '리프레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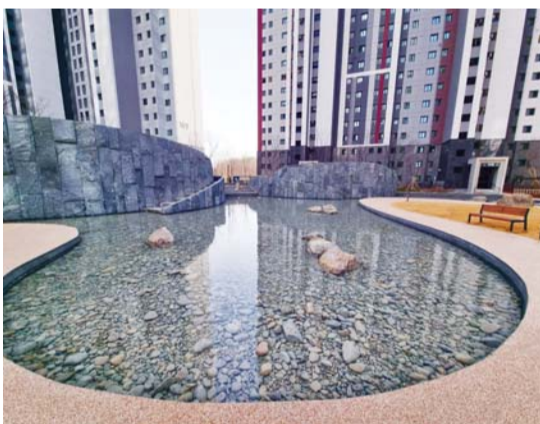
단지 내 조경.

안산역 1번 출구서 도보 약 15분
남향 위주로 배치 채광·통풍·조망 ↑
입주자 보행 편의 위해 주차장 지하화

단지 중앙엔 잔디광장 등 '그린필드'
리조트 급 조경과 '수변공원' 조성도
안산의 대표적인 야경 랜드마크 우뚝



단지 내 조경 모습.



단지 내에 마련된 '수변공원'.

최근 찾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이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원곡·안산서 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안산 시민공원, 관산공원, 화랑유원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10개동, 총 171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49㎡ ▲59㎡ ▲72㎡ ▲84㎡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푸르지오(PRUGIO)'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새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해 차 없는 지상공원이 눈에 띄었다.

단지에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미

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5ZCS(Five Zones Clean Air System)'가 도입됐다.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집안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구역을 5개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차단·관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통풍·조망을 극대화했고, 각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조경 공간을 최대로 확보했다"면서 "빛나는 공원이라는 뜻의 팻네임에 걸맞도록 '경험하는 가치'와 '통합된 하나의 자연풍경'이란 컨셉트를 반영해 설계한 단지는 안산의 대표적인 야경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을 없앤 지상층에는 '패밀리가든', '선큰가든', '라운지가든' 등 총 3가지의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패밀리가든에는 미러폰드, 그리너리하우스, 미술 장식품, 조형열주가 함께 설치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단지 중앙에는 잔디광장과 함께 수목, 산책로로 구성된 '그린필드'가 조성됐다. 산책로를 따라서 계절 초화류를 심어 사계절을 느낄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린필드 옆에는 '돌과 물의 풍경'이라는 컨셉의 '수변공원'이 조성됐다. 경사진 암벽 연출을 통해 푸르지오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부여된 수변공원에는 특화 조명 시설이 설치돼 고급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동산과 코끼리, 오두막, 토끼 등 여러 주제로 조성된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의 배려가 엿보였다. 토끼 테마 놀이터 앞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ROUNGE) 내에 피트니스 클럽, GX룸, 골프클럽, 독서실, 푸른도서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됐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그린필드'에 설치된 휴식공간.

/김대환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日공명당 대표 “한일회담서 징용 해법 방향성 확인해야” /사진 뉴시스
▲ S&P·피치, 美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신용등급 강등

▲ 중국 해경선, 센카쿠 일본영해 침범… “조업 어선 뒤쫓아”
▲ “한일지사회의, 11월초 日서 개최 추진…6년 만” NHK



▲ “대면 근무 성과가 더 높다”… 메타, 재택근무 축소 시사
▲ 미래, 드론 추락에 핫라인 가동… 합참 통화도 예정 /사진 뉴시스